일 주 문



교육콘텐츠부문 대학 대상 수상

보광 동국대 총장 스님은 10월 26일 서울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7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시상식에서 교육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태고종 총무원 홍보부장 임명

혜철 옥천 대성사 주지 스님은 10월 31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 홍보부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종 교육원 부·국장 인사 잇달아

교육부장 진광 스님 · 불학연구소장 대안 스님
불학硏 사무국장 서현 스님



진광 스님



대안 스님



서현 스님

조계종 교육원 부 · 국장 인사가 잇달아 단행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원장 집무실서 신임 교육부장 진광 스님, 불학연구소장 대안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국장 스님으로 소임을 다해준 진광 스님이 부장이 돼 낯설지 않고 큰 힘이 된다. 함께 상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1월 1일 신임 불학연구소장 사무국장에 서현 스님을 임명했다. **신성민 기자**

임제불교조계종 창종10주년 법회



임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동일)은 10월 26일 횡성 향천사에서 '종단 창종 10주년 및 제3대 총무원장 동일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대한불교합일승가회 회장 법민 스님, 법안조계종 종정 오봉 스님, 태고종 前 총무원장 도산 스님,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제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동일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정진 또 정진해 국가발전 기여"

Interview

김상규 공불련 제11대 회장

10월 28일 만장일치 추대
월례법회 · 참선법회 등 도입
공부모임 활성화 기치 내걸어

김상규 제10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이 10월 28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1대 공불련 회장에 추대됐다.

김 회장은 "각 기관불자회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 더욱 정진하고 신심을 깊이 하여 공불련 발전을 이끌겠다"며 "이 발전이 나라 발전이 되며, 자리이타행이 부처님 불국토 완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규 회장은 2016년부터 10대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했다. 김 회장은 공부하는 불자, 신심 넘치는 공불련을 강조하며 조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갔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월례법회는 그 상징. 월례법회 마다 300여 공무원 불자들이 모여 함께 수행하며 신심을 증장시켰다. 하반기 창립법회와 함께 10월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법사로 공불련 사상 최초로 참선법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1년 동안의 임기동안 많은 것을 추진했기에 김 회장의 재임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김 회장은 "전임 9대가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해 1년의 잔여임기를 채우고 다시 2년을 시작하려 한다"며 "보통 4년을 하는 것이 관례지만 2년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 공무원 차관 급의 임기가 2년을 가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 주위로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위기에 대한 처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정신의 위기가 더 심각한 이 때에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정 스님으로부터 '청백가풍직사형칭두불허창승좌'란 글귀를 선물 받은 적 있다는 김상규 회장은 조계종 집행부와의 원할한 소통도 다짐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새로운 취임은 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에 하는 일도 변할 것이 없다. 각 부처별 공부모임을 활성화하고 법회를 문화행사로 꾸며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규 제11대 공불련 회장은 제28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조달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7월 공불련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매월 조계사에서 정기법회를 여는 등 공무원의 신행생활을 이끌어 왔다. **노덕현 기자**

"평화통일 기원 희망씨앗 되길"

통일발원 만행길 오른 통도사 前 부주지 재원 스님



"평화 통일을 위해 걷습니다. 남북통일이 되는 그날 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前 부주지 재원 스님〈사진〉이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만행길에 올랐다. 재원 스님은 11월 1일 통도사 대웅전 금강계단과 해장보각에서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에서 재원 스님은 "작은 시작이 씨앗이 되어 맺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며 사부대중 앞에서 맹세한다"며 "만행길이 끝까지 회향 되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묵묵히 거북이처럼 걷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재원 스님은 통도사 산문 앞에서 출발해 울산과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바닷길을 따라 총 700km를 걷는다. 기간은 한 달을 예상하며 12월 1일 강원도 통일전망대에서 회향할 예정이다.

스님은 "나이가 69세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원력인데 이룰 수 있어 행복하다"며 "동해안 길을 마치면 서해 그리고 다른 루트로 모색해 통일 발원 걷기 운동을 지속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이후 대중들과 모임도 구성해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원 스님은 동국대와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대구에서 마하사 주지로 활동했으며 직지사 포교국장, 통도사 교무국장, 통도사 전 부주지를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 시문학 풍부해지는 계기

〈불교시문학 상 · 중 · 하〉 출판기념 법회 봉행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한국전쟁기념관 내 뮤지엄 홀에서 한국불교 최초로 3권으로 구성된 〈불교시문학 전집〉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기념회서는 도서헌정에 이어 한국불교 예술대학 해사 스님과 제자들이 승무로 법회를 장엄했다.

금강선원 이사장 혜성 스님은 경과보고와 인사말을 통해 3년 여에 걸친 자료수집과 분류, 그리고 편집을 맡아주신 편찬위원들께 감사를 표했다.

혜성 스님은 "내용적으로 한국불교를 보다 풍부하게 만든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이는 한국불교 시문학의 또 다른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3권의 불교시문학 전서 중 상권은 화엄경 게송이 담겼다. 모든 게송은 한문원문과 함께 한글 음이 달렸다. 이와 함께 우리말 해설도 함께 달려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서는 두 저술이 합본된 민희식 교수의 〈유럽정신사〉와 서무선 법사의 〈자아탐구〉 출판기념회도 함께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원당암 중앙절 천도법회



해인사 원당암은 10월 28일 중앙절을 맞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경내 원당에서 선망부모,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 원당암은 보광전에서 헌공의식 후 만년위패가 봉안된 원당에서 40여 년 전 前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이 주석할 때부터 무명영가의 천도를 축원하는 법회를 열어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해사 개산대재 및 작은음악회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0월 28일 대웅전에서 창건 1208주년 은해사 개산대재와 스마트 경북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산대재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박물관장 돈명 스님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과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천주교 대구대교구 경산성당 이창영 신부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 조사를 모신 다례재를 시작으로 개산 법요식과 보살계 만등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진안 쌍봉사 지역사회 나눔활동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거주할 곳이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가족이 생활하는 박찬국 씨의 집을 짓는 진안 사랑의 보금자리 4호 주택 건립에 동참했다. 10월 26일 건립기념식을 가진 진안군 동향면 사랑의 집 박찬국 씨 집은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관내 종교계와 개인 등이 후원금을 모아 이뤄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담 화 문

귀의삼보 하옵고,

종도여러분의 앞날에 지혜와 희망의 등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총무원장 취임식에 성력(誠力)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재의 실상은 종연생멸(從緣生滅)하는 까닭에 시절인연에 따라 소납이 총무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종단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생각할 때 실로 무거운 중압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종단은 전통적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찬란한 자존(自尊)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받드는 지혜로운 종도들의 역량이 내재되어 있어 종도들이 마음만 하나로 모은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용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그 동안 이완(弛緩)되어진 종도의 애종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유기체적 수행 공동체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큰 틀에서 종도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종도의 여망과 종정예하의 하명(下命)을 받들어 창종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종단과 괴리(乖離)되어 왔던 종도들을 일괄 사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각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 종단의 부당한 처결(處決)로 인하여 종단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억울한 종도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종단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근본적인 화합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장래 종단의 미래가 흔들릴 지도 모릅니다.

이번 종정예하의 일제사면(一齊赦免)을 계기로 종도 모두 흔연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여 하나 되는 화합 승가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유컨대 절대 다수 종도는 그 동안 쌓여온 적폐를 말끔히 청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종단을 정상화 하는 데는 하루 이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한 두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도 각자의 성찰과 자기 갱신(更新)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적폐청산과 새 종단건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간도 자신과 관련된 모순(矛盾)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오직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와 오만은 대중을 분열시키고 독선과 아집은 집단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 집권자의 권위보다는 종도의 권익(權益)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사익보다는 종단의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 증오와 불신을 화합의 용광로에 용해시켜, 공존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용기는 만용(蠻勇)과 편견(偏見)이 아니라 보편적 상식을 따르고 소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납은 총무원장으로서 한 알의 밀알과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종도와 더불어 종단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는데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종도여러분 !

소납을 믿고 힘을 모아주시고 새로운 종단건설에 함께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기 2561(2017)년 11월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 백 운